

재활용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재활용. 사실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라 자칫 진부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IMF한파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재활용이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제도화되면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일상 생활 속이 아니기 때문

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감이 없지 않았었다.

재활용품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의 인식도 재활용이 제대로 실천되는데는 적지 않은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또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가 만연했기에, 쓸만한 물건들이 무수히도 많이 버려져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고 천연자원마저 빈곤한 나라에서 이러한 의식과 생활양식을 갖고 있었으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들어,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고, 환율 상승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주체하기 곤란했던 폐지·페페트병 등 폐기물의 재활용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도 줄이고 국가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재활용의 실천이야말로, IMF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환경과 경제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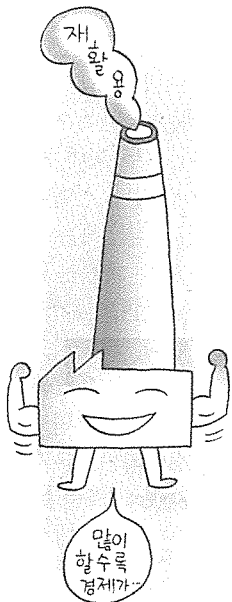
물물교환으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최근 언론을 통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용품의 물물교환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한 예로 YMCA가 '다시 쓰는 알뜰함 나눠쓰는 따뜻한'을 기치로 녹색소비운동을 전개하며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매장인 '녹색가게'가 있다.

바지 5백원, 가죽지갑 4백원, 넥타이 3백원, 운동화 2백원... 이곳에서 판매되는 재활용품의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운영체계의 재활용 문화공간인 이 녹색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다. 물물교환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환물품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1,2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

또 물품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만큼 교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환하고 나머지는 녹색가게





의 화폐와 다름없는 구매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 구매권은 재활용품의 사용가치에 따라 최저 1백원에서 최고 5천원까지 있다.

매장에는 아이들 장난감부터 의류, 책과 문구류, 신발류 등 다양한 생필품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다.

벽면 한쪽에는 직접 갖고 나오지 못하는 용품의 교환 정보와 생활정보를 지역주민들끼리 나눌 수 있게 게시판도 만들어 놓았다.

또 환경마크인증제품과 재생제품 등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한쪽에 따로 있다.

현재 서초·은평·장안 3곳에 녹색가게와 과천에 알뜰매장을 열어놓고 있는 YMCA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올 한해동안 전국 1백여 곳에 녹색가게를 설치하고 자원의 소비절약과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IMF 위기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녹색소비운동(일명 녹색가게운동)은 기존의 소

비행태가 야기하는 자원 낭비와 그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을 소모적으로 쓰기만 할 뿐 재사용 통로가 없어,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그냥 방치되거나 쓰레기로 전락해 버리곤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신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패턴을 바꾸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탄생한 것이 녹색가게이다.

* 재활용품 매장 : 은평점 (서울기독청년회 388-6341), 서초점 (녹색가게 591-6060), 동대문점 (녹색가게 246-1281), 알뜰매장 (과천시독청년회 500-1357), 전국자원재활용협의회(3461-5880), 물물교환센터(송파구청 430-2160), 고쳐쓰기센터(송파구청 410-3728 ~9), 재활용품 상설판매장(효자동 사랑방 731-0685)

가전제품, 가구류를 고쳐드립니다

각 구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센터. 구청이 직영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이곳에

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류가 주된 품목이다.

버리거나 고쳐쓰고 싶은 가전이나 가구가 있을 때 구청이나 재활용센터에 전화하면 소정의 수수료 혹은 무료로 수거해 가거나 약간의 수리비를 받고 고쳐준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전제품 5~15만원, 옷장 7~10만원 정도로 제법 쓸만한 재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신제품 구입시, 사용하던 가구나 가전제품을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회수처리하기도 한다.

국내 폐지 등 재활용 활발

IMF의 구제금융 이후 환율상승으로 펄프나 고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집하장과 재활용업체에 쌓여 골머리를 앓았던 재활용 쓰레기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국산폐지를 찾는 제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국산폐지의 재활용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거의 쓰지 않거나 선별해서 구입했지만, 최근에는 수집상이 가져오는 폐지는 품질에 관계없이 전량이 소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공급물량이 부족해 요즘은 선금을 주고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종이 제조를 위한 나무는 거의 열대림에 의존하고 있는데 열대림의 지속적인 벌목은 열대림 지역의 사

막화를 재촉하고 있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는 17 그루 정도의 나무가 필요하다. 반면 나무를 베어낸 자리를 다시 채우는데는 3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며 상당한 노력이 든다.

또한 종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결국 종이는 우리 생활에서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면서도 원료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손실이 뒤따르는 제품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종이 낭비를 줄이고 재생지 사용률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숲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재펠트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으로 사용해 오던 재생지를 오는 99년부터는 초중고 전 교과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 올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 일부를 재생지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재생지는 일반 종이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제작비용도 많이 드는 실정이었지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품질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었고 종이원료 및 제품가격의 급상승으로 재생지의 생산원가 또한 안정세로 돌아섰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재생지 생산업체의 증가와 기술혁신, 수요의 증가만 뒷받침된다면 외화절감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재생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달리고 있는 폐지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폐지를 분리 배출할 때는 우선 물이나 오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플라스틱·알루미늄·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현책·잡지류는 종류별, 형태별로 30cm 높이로 끈으로 묶어 내놓도록 한다. 이때 비닐봉지에 넣지 않아야 하며 비닐코팅은 제거해야 한다.

각종 상자류는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끈으로 묶어 내놓고, 각종 팩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납작하게 눌러 다른 우유팩에 5~6개씩 넣거나 펴서 내놓는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종이를 아껴 쓰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전단이나 통지문의 뒷면은 메모지·계시판 쪽지 등으로 재사용하고 다 본 책과 잡지는 분리배출 전에 이웃과 돌려보거나 필요한 곳에 기증하도록 한다. 여러 신문을 동시에 구독하지 않도록 하며 무상으

로 배달되는 신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도 종이 절약의 지혜.

알고보면 모두가 재활용품

그외에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무수히 많은 재활용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환경을 버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헌옷 중 흡습성이 좋은 면섬유는 기름이나 오물을 닦는 공업용 걸레로, 그밖의 섬유는 주로 농업용 보온덮개, 방음·방벽·방수 팻트 등으로 재활용된다.

헌 옷을 분리 배출할 때는 카펫·가족백·구두·기저귀 커버 같은 복합 소재의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 30cm 높이로 묶어 내놓는다.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거의 되지 않아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며 토양에 의존해 살고 있는 숲한 생물들의 양분 공급원을 차단,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용기는 성상·재질 등이 다양해 분류가 까다로우므로 플라스틱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에 표기된 재질표시 문자와 숫자를 확인하여 재활용 기능품만 분리·배출해야 한다.

세제류 용기·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페스티로폼

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낸 후 말려서 내놓는다. 페스티로폼 중 1회용 용기 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며, 가전제품을 포장한 스티로폼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다.

전화기·헤어드라이어·옷걸이 등 복합재질로 된 폐플라스틱과 재떨이·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폐플라스틱도 재활용품이 아니다.

유리병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재활용품이다. 회수된 유리병은 세척과 소독을 거쳐 다시 사용되며, 1회용 병과 폐유리병은 분쇄되어 다시 유리병의 원료로 사용된다.

유리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꽂초 같은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이물질로 된 뚜껑은 제거하고 되도록 무색·청·녹색·갈색으로 나누어 내놓아야 하며, 농약빈병은 유리병과 페트병으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에 따로 넣어 내놓는다.

판유리나 형광등·백열등·거울 등은 재활용이 안 된다.

고철·알루미늄캔·철캔 등 또한 다시 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철사·철판·양은·스텐·구리 등은 되도록 부피를 줄여서 내놓으며, 용기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로 된 뚜껑을

분리해 내놓는다.

알루미늄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을 뜨리고, 뚜껑 분리형은 뚜껑을 넣어 함께 내놓는다.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은 뒤 뚜껑을 뜨려 내놓는다. 플라스틱이 많이 섞인 라디오나 시계는 금속 성분이 있더라도 분리하여 내놓으면 안 된다.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생활 속의 지혜

가정에서 무심코 버리거나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멋진 생활용품을 만드는 알뜰살뜰 지혜를 발휘하는 주부들이 있다.

색바랜 커튼으로 식탁보를 만들고, 그 식탁보로 아이들의 옷을 만들고, 그 옷으로 다시 토시나 머리끈을 만들어 쓰는 어느 주부에게는 작은 형겅이라도 그냥 버릴 수 없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

너무 크고 두꺼워서 처치 곤란인 분말세제통. 깨끗이 씻어 말려서 흰 포장지로 예쁘게 싸고 그림도 좀 그려 넣으면 멋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된다.

또 세제통의 윗부분은 잘라버리고 형겅이나 색종이로 장식한 다음 실이나 끈으로 연결해 벽에 걸면 훌륭한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구르트병에 흰 실로 옷을 떠 입히면 방향제나 단추통, 혹은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0ml 우유곽은

신문지를 넣고 봉해 걸을 흰 종이로 싸서 그림을 그리거나 숫자를 적어 넣으면 퍼즐 게임용이나 아이들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요구르트병을 모아 붙여 만든 강아지집, 빈 상자를 모아 만든 서랍장, 우유곽과 신문으로 만든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폐식용유로 만든 재활용비누, 녹차찌꺼기나 커피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냉장고용 탈취제, 페트병으로 만든 화분·연필꽂이·꽃병 등 조금만 관심을 갖고 부지런을 떨면 훌륭한 재활용 끼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종이·고철·캔·플라스틱 등의 재활용률을 10%씩 증가시킬 경우 약 3억달러의 원자재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재활용품과 재생용품의 활용이나 쓰레기 분리 배출이, IMF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제 우리도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기 위해, 물건을 살 때는 신중을 기하고 한번 산 물건은 평생을 두고 쓰겠다는 각오로 아껴쓰며, 물건을 버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환경 살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72]

(자료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